

동유록, 근촌 백관수의 대춘보--- 봄을 기다리는 마음

백순

근촌 백관수는 동경 메에지 대학 유학생으로서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여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YMCA 회관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동경감옥에 투옥되어 1년 여 감방생활을 하면서 한시를 지어 그의 심정을 형상화하였다. 1920년 3월 25일에 출옥한 후 한시를 정리하여 [동유록] (東幽錄) 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 가운데 5절(五絶), 7절(七絶), 5율(五律), 7율(七律), 등 형식의 한시를 모아 별도로 [동유음] (東幽吟) 이라 명명하였다.

[동유록] 전편인 [동유음]은 26편의 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유록] 후편은 '제일' (除日) 제목의 1편, '제야' (除夜) 제목의 2편, '신정 40 운' (新正四十韻) 제목의 40편, 그리고 '자위가' (自慰歌) 제목의 2편, 등 모두 45편의 한시를 포함하고 있다. [동유록]에 수록된 71편의 한시를 통하여 근촌 백관수의 사상과 정신, 그리고 마음상태 (심정)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근촌 백관수는 [동유음]에서 그의 한국 독립에 대한 열정을 감옥안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 (심정)'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동유음] 첫 시가 이를 잘 표출한다.

正當

正當二月時 春色尙何遲

三疊幽窓下 也吾獨不知

정녕 때는

정녕 때는 2월이건만

봄 기운 아직도 어이 더딘가

세 다다미 크기의 감방 창 아래 에서

역시 나 홀로 모름이런가

Surely Now

Surely now is February, though;

Why does the springtime come late still?

Imprisoned in three tatami-size prison cell with a window,

I am only one not to recognize it.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투옥된 후 2 월이면 봄이 오고 있을 터인데 감옥안에 갇혀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봄 빛을 느끼지 못함은 봄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닌지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봄은 오고 있지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진정한 봄은 오고 있는 것인지 그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옥중의 수인은 표출하고 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봄은 4 가지의 봄이다.

(1) 첫번째 ‘기다리는 봄’은 반 만년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大陸

大陸東之部 槿花半萬春
和風吹不盡 終是向榮人

대륙

대륙 동방의 땅
무궁화 반만년의 봄이 오겠고
따스한 바람 그치지 않고 부네
끝내는 사람에게 영화로움 있으리

The Continent

There is a land at the eastern corner of the Continent.
The land has observed the Rose of Sharon blooming in the spring five millennium.
And warm wind blow visits it endlessly.
All of these are designed for the benefits of the people.

그가 바라는 봄이란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 한국이 독립하는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그 영화로운 봄은 따스한 바람이 끝이지 않고 불어서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

(2) 두번째 ‘기다리는 봄’은 충의로운 나라사랑이 열망하고 있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百死持心歌最烈 七生滅賊念其眞
此忠彼義何由別 千載共醒愛國人

일백번 죽음의 지심

백사의 지심가 최고 충렬이고
7 생의 적 멸하는 마음 그토록 진심이네
이 충성스러운 마음과 저 의로운 가슴 어찌 다르리오
천년 세월에도 나라 사랑하는 인물 함께 깨우치리

A Loyalty Mind with a Hundred Death

A loyalty mind with a hundred death song is the best patriot one;
This patriot mind and that righteous heart are not so different;
Over thousand years, it is better to realize that we love our nation and people together.

고려의 정포은이 보여 준 ‘일백번 고쳐 죽어’의 나라사랑이나 일본의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들어
낸 ‘일곱번 다시 태어나 적을 멸할 것이라’의 나라사랑이 그 토록 바라며 기다리는 봄을 표출해
주고 있다.

(3) 세번째 ‘기다리는 봄’은 열국의 강화조약을 통하여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그 때 마침 1919 년에 1 차세계대전을 끝내면서 ‘파리평화회의’ (Paris Peace Conference) 가
열리고 있어서 그 국제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제창했던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 질 희망, 즉 한국 독립의 봄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열강사이의 이권다툼으로 한국 독립의 봄은 오지 않게 된 것이다.

講和約 (3)

聞道講和約 近成何所成
利人難利我 爭霸又爭城

誰叫義分重 自嫌勢位輕
況而音寂寞 疑慮九分生

강화조약 (3)

소식 들었네 강화조약이
근래 이루어 지고 어떠한 것이 이루어 졌는지
남들에게는 이로운데 우리에게는 이롭기 어려워
패권 싸움과 영토 싸움이네

누가의분이 중하다고 부르짖는가
스스로 미워하네 세력이 약해 지는 것을
더구나 소식조차 적막하니
의심하고 두렵네 살아나 남을까 하고.

Peace Treaty (3)

Hearing a news about the peace treaty
Is signed lately and what is included.
It is advantageous to others but disadvantageous to us;
It is all about domination and territory war.

Who could advocate the importance of the righteousness?
Everybody abhors to be placed in weak position.
Furthermore, a news is nowhere;
Sustaining a life is afraid to be questionable.

오히려 세력이 약한 것을, 더구나 살아 남아 있을까 를 걱정해야 하는 기다려 지는 봄인 것이다.

- (4) 네번째 ‘기다리는 봄’은 2.8 운동이 불씨가 되어 한국 전역에 독립운동이 번지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한국 독립의 봄이다.

靑山二友

靑山二友訪幽居 袖示慇懃意不疎
旣爾苑傷三百許 今爲逮捕七千餘

礮溪有士傳新語 孫子用兵比古書
處處風翻間島又 是知吾族活飛如

靑산의 두 친구

청산의 두 친구 감방 찾아 와서
은근히 알려 주네 우리의 옳은 뜻 사라지지 않고
이미 사상자 3 백을 넘고
지금 체포된 자 7 천 여명

반계의 지사 있어 새 신호 전하고
손자의 용병 고서에 비기네
여기 저기 의거 바람 간도에도 일어 났고
분명히 알겠네 내 겨레의 활약상을

Two Friends of Chung-San

Two friends from Chung San visited me in a prison cell;
Letting me know courteously our righteous would not be defeated.
Already the killed and the injured are numbered 3 hundreds;
Now the arrested are 7 thousands over.

The Ban Gae patriots conveyed a new coded words;
Sun Tzu's tactics is compared to an old book.
The movements were spread here and there even to Gan Do area.
Surely understood my nation's activities.

근촌 백관수는 2.8 운동을 '갇힌 새'로, 거국적 운동을 '봉 새 날라' 와 '학 울음소리' 로 은유하고 있다. 그가 기다리는 봄은 2.8 운동이 작은 기폭제가 되어 한국 전역에 거국적인 독립운동 (3.1 운동 같은) 이 일어 나고 그를 통하여 한국 독립의 봄이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리라. 한국 독립의 봄이 도래하는 날 2.8 운동의 외침은 개선가가 될 것임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근촌 백관수는 [동유록] 후편에서 그의 한국독립에 대한 열정을 동경 감옥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 (심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동유록] 후편 마지막 시인 '자위가' (自慰歌, 스스로 위로하는 노래) 에서 잘 들어 내고 있다.

自慰歌 (1)

仰而不愧 俯亦不愧
俯仰不愧 有何悔

大義討敵 順其人道

道義既明 有何誤

자위가: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음이어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음이어
밑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어
굽아보던 우러러 보던 부끄러움 없으니
무엇 뉘우칠 일 있으리오

커다란 옳음으로 적을 꾸짖었음이어
사람의 도리를 따랐음이라
도리가 이미 분명하거늘
무슨 잘못 있으리오

Self-Comforting Song: Being Not Ashamed Toward Heaven

Being not ashamed toward heaven;
Nor being ashamed toward earth.
Being no ashamed toward earth and heaven,
What to be repented?

Attacking the enemy with a great righteousness;
Just following a just humanity.
The human justice is truly obvious;
Is there any wrong-doing?

근촌 백관수는 마음 속으로 크게 홀로 외치고 있다. 위를 우러러 보거나 아래를 굽어 보거나 어디를 보아도 그의 2.8 독립선언의 외침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마음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옳음과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끄럽지 않은 마음'에 대한 3 가지 모습을 [동유록] 후편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 (1) 첫번째 '부끄럽지 않은 마음' 은 한국의 독립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除夜 (1)

嘒嘒傷感倍於中 此夜窮時此歲窮
我功不舉時何晚 大序循環理則公
飾松門戶看夷俗 爆竹鄉山思國風
耿耿不眠獨居處 孤燈惟照片心紅

선달 그믐날 밤 (1)

생생한 슬픈 마음 옥중에서는 배가 되고
이 밤 다 하면 이 해도 다 가네
내가 한 일 질문해 보는 때는 어느 밤인가
거대한 일 순서 섭리 움직임 이치에 맞고 공평하나니

문 위에 달은 소나무 오랑캐 풍속이라고
고향 산 폭죽은 내 나라 풍속이라 여겨지네
많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외로운 거처
외로운 등불만 일편단심 마음 붉게 비추이네

Last Night of Year (1)

Sorrowful hurt feeling doubles in a deep cell;
As this night passes, this year ends.
Which night did I not reconsider my endeavor?
The great order and circulation rule of the world affairs are fair and righteous.

Hanging a pine tree on the front door is regarded as a barbarian custom;
Setting off firecrackers in the hometown mountain is considered a home country tradition.
A sleeplessness with deep sorrow in the lonely place;
Lonely lamp only brightens my sincere true heart scarlet.

감옥안에서 그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2.8 독립운동의 결실은 늦어지고, 밖에서는 제야를 보내는 축제소리가 감방안에 들려 오는데, 감방안의 외로운 등불이 오히려 본인의 한국독립을 향한 일편단심을 붉게 열정적으로 비추어 내고 있음을 표출한다. 바로 이 붉게 드러나는 일편단심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마음'인 것이리라.

(2) 두번째 '부끄럽지 않은 마음' 은 2.8 독립선언이 자유와 정의에 근거한 선언이라고 하는 마음이다.

新正四十韻 (9)

自由元有價
正義是無偏

새해 40 운 (9)

자유 원래 가치가 있고
정의 본래 치우치니 않네

New Year 40 Rhymes (9)

The freedom really has a true merit;
The justice originally is not biased.

자유는 인간이 인류역사상 오랜 시간동안 피 흘려 쟁취한 인간 근본의 가치이고, 정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간의 올바른 척도일진데, 2.8 독립선언은 바로 이러한 자유와 정의에 근거를 둔 운동이라고 하는 부끄럽지 않은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3) 세번째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2.8 독립선언이 인간의 대의와 도의에 따른 운동임으로 그 운동 자체에는 잘못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운동과 관련해서 스스로 후회하고 잘못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다.

自慰歌 (2)

若言所自悔 惟業不舉
又言所誤 勢不與

笑彼常囚者 非盜則詐
誤而且悔 人之瑕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음이어

만약 스스로 후회한 바를 말한다면
자기 공만은 내 세우지 말고
또 잘 못함을 말한다면
권세에 동조하지 마라

저들 언제나 잡아 가두는 자들을 비웃자
도적이 아니면 사기꾼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또 뉘우침이란
인간의 허물인 것을.

Planned Mission Not Accomplished

If you want to talk about your repentance,
Do not mention your accomplishment.
Speaking again any mistakes you made,
Do not side with the authority.

Those arresting officers always laugh at;
They are either thieves or charlatan.
Making mistakes and then regret it later
Is human fault nature.

2.8 독립운동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있을 수 없지만, 스스로 후회가 있다고 하면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한 후회가 있고, 잘 못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세상이 돌아 가는 형세가 따라 주지 않은 잘 못인 것이리라. 그러한 뉘우침과 잘 못도 바로 인간의 허물인 것임을 토로. 표출함으로써, 근초 백관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간직하고 있을지 모르는 인간의 죄(원죄)에 대한 심정을 시를 통하여 형상화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근초 백관수는 [동유록]에서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는 사상을 동경 감옥안에서 두가지의 마음(심정), 즉 [동유록] 전편 [동유음]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 과 [동유록] 후편의 '부끄럽지 않은 마음' 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봄은 (1) 반만년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독립이며, (2) 총의로운 나라사랑이 갈망하고 있는 한국의 독립이고, (3) 열방의 '파리강화회의'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보는 한국의 독립이며, 그리고 (4) 2.8 운동이 불씨가 되어 한국전역에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번지어 이루지기를 열망하는 한국의 독립이다.

그리고 근촌 백관수가 동경 감옥안에서 다짐하며 간직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마음은 2.8 독립운동을 일으키었던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다. 그의 ‘부끄럽지 않은 마음’은 (1) 한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이요, (2)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인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마음이요, 그리고 (3) 큰 일을 이루지 못한 스스로의 후회와 형세가 따라 주지 않는 잘못이 있는 인간의 허물을 인정해야 하는 마음이다.

근촌 백관수의 이러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 과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1919 년 3.1 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수립과 1945 년 대한민국의 해방을 가져 오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